

<동정자료>

## 손병석 차관 “하반기,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기틀 완성할 것”

중앙건설안전협의회 개최...모든 건설 주체 참여하는 안전점검 추진 당부

□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일 오전 10시 철도 건설현장\* 점검 후 이뤄진 ‘중앙 건설안전협의회’ 본 회의를 주재했다.

\* 대곡-소사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현장(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인근)

○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지난해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이며,

○ 이번 회의는 2018년 상반기 건설안전 실태를 평가하고, 하반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.

○ 협의회 구성은 회장인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위원과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 소속기관, 업계, 노동조합 및 학계 소속의 민간위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.

□ 본 회의에 앞서 손 차관은 민자철도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관리체계가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검했다.

○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“민자사업은 사업특성 상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지만, 원칙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과 작업시간을 충분히 투입해 관리해 줄 것”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.

□ 현장점검에 이어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 손 차관은, 건설안전정책의 추진현황과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건설현장의 우수 안전 관리 사례를 보고받고,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방안에

대해서도 협의회 위원들과 논의했다.

- 손 차관은 “올해 들어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성과가 있었지만, 대형현장에서 사고가 증가\*한 것은 우려할 부분”이라며 금년 상반기 성과를 평가하고,

\* 5월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명 감소했으나, 1000억 이상 대형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10명 증가(잠정)

- “하반기에도 안전 최우선 기조와 무관용 원칙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, ‘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’의 산재 감소대책을 적극 실천하여 건설안전 강화의 기틀을 완성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- 이어 “정부·발주청·업계·노조·학계 등 모든 건설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건설 중인 시설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설과정의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달라.”고 당부했다.

2018. 7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